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 顯祖實錄探險

단종端宗 관련 영남 사적지 재조명



권요신
칼럼니스트, 윤곡서원위원장

국민이 치루는 국장(4월 26일 영월 단종문화제)이란 말이 울림으로 다가설 만큼 새롭게 조명됐다. 조선의 왕으로서의 유일하게 국장을 치루지 못한 왕이 단종(端宗)이었다.

영남지방엔 단종과 관련된 사적지가 유독 많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 이후 답사객들이 꾸준히 늘고 단종과 금성대군 사육신 죽림공 갈산공의 서사가 깃든 영주 순흥의 금성단(錦城壇) 수령 1,100년 은행나무와 경주시 강동면 윤곡서원(雲谷書院) 수령 250년 은행나무는 ‘국가산림문화자산’이 될 만큼 유명해졌다.

영의정(領議政) 황보인(皇甫仁)과 두 아들을 배향하는 포항시 구룡포읍 광남서원(廣南書院)과 영덕군 창수면 오봉공 종택, 경주시 안강읍 봉산재, 김문기(金文起) 공을 배향하는 경주시 양남면 나산서원 등이다.

1456년 영해로 유배길에 오른 오봉공 권책(權策)은 현덕왕후(玄德王后, 단종의 생모)의 의친(懿親)이다. 종부(宗子監權自愼 예조판서禮曹判書)와 부제학(副提學)이었던 부친(父親, 휘諱 자충자弘)과 두 형(兄弟 郊리, 서쪽 郊리)이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된 이후 극형을 당하고 나이가 어렸던 공은 경상도 바닷가 영해부 인랑리로 유배됐다. 열일곱 살 단종이 영월 유배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배소 뒷산 왕암에 올라 북쪽을 향해 통곡을 했다고 한다. 왕암 유적지는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

세조가 왕위를 얻는 과정에 대한 기록은 적지 않지만 계유정난(癸酉靖難)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적은 기록은 많지 않다. 수양과 단종에 얽힌 사실들을 가장 명료하게 밝힌 역사가는 조선 왕조가 망하기 직전 중국으로 탈출한 김태영(金澤榮)이 아닐까.

김태영(金澤榮)은 중국에서 황현의 ‘매천집’ 등을 출판, 국내로 반입시키는 등 식민지 영토를 벗어난 곳에서 출판을 통해 문화적 독립운동을 펼친 문인이자 역사가다. 김태영(金澤榮)은 조선 왕조 역사를 정리한 ‘한사경’에서 세조의 찬탈 행위를 선명하게 기록했다.

정난 이후 좌의정(左議政)에 오른 신숙주가 노산군 부인을 노비로 삼자고 주청했으나 세조가 유려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온다. 임금의 지위를 훼손 것이나 여러 아유를 죽인 사실은 영원히 남을 죄악이며 신숙주가 단종 비를 노비로 삼자는 주청은 가장 잔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성균관대학교 한영규 교수 저 장릉유신 권책(權策)의 충의와 지절>

단종과 얽힌 사적의 실체는 단연 시조(始祖)를 주벽에 모신 윤곡서원이다.

정조 13년(1789)에 창건된 윤곡서원(雲谷書院) 동벽에 단종의 이모부이신 죽림공(竹林公, 휘諱 산해山海)을 배향하고 금성단 은행나무의 대를 잇는 압각수(鴨脚樹, 은행나무) 때문이다.

단종과 금성대군 사육신 죽림공 갈산공으로 이어지는 서사를 간직하는 모후나무는 순흥 금성단 압각수. 1745년 경주부 국당에서 태어나신 갈산공(葛山公) 권종락(權宗洛)이 정조(正祖) 13년(1789) 단종사화로 순절한 충신들이 모두 복권되었는데도 유독 자신의 12대조이시자 단종의 이모부였던 죽림공(竹林公)이 빠진 데 한을 품고 한양에 올라가 정조 임금의 효장묘 능행 어가를 격정으로 가로막고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다.

정조 13년 죽림공(竹林公)은 갈산공(葛山公)의 목숨을 건 격쟁(擊聲)으로 신원(伸冤)이 되고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증직됐다. 그제서야 무덤 앞에 비를 세울 수 있었고 금성단(錦城壇)과 영월 장릉 배식록에 이름을 올렸다.

갈산공(葛山公)은 돌아오는 길에 영주 순흥 금성대군신단(錦城大君神壇)에 들려 죽림공(竹林公)의 신원 사실을 고유하고 금성단(錦城壇) 은행나무 가지를 한자 남짓 잘라 행랑에 넣어 고향길을 재촉했다.

예전 영송산 죽림공(竹林公) 묘소에 들러 신원 사실을 고유를 하다 보니 한 달이 걸려 윤곡서원(雲谷書院)에 도착했다. 1789년 6월 16일 갈산공(葛山公)은 서원 동쪽 우측 언덕 자리에 걸걸질이 말라버린 은행나무 가지를 행랑에서 꺼내 심었다. 친척들이 “살아날 리 없다”고 말하자 공은 큰 소리로 “죽림(竹林) 선조(先祖)의 충절(忠節)이 드러나면 반드시 살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공의 예언처럼 기적 같은 새움이 나와서 250년이 넘는 풍상(風霜)을 견디고 키 50m 노거수로 자랐다.

단종 사화에 연루된 후손들의 고통은 생활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유배길에 오르는 것도 모자라 금고형에 묶이고 학제가 뛰어나도 벼슬길에 나서지 못한다.

농경사회에서 벼슬길에 나서지 못하면 세상에 드러날 수도 살림이 나아질 수도 없다. 경상도 연일 대잠산이 유배지가 되고 100년 금고형에 묶인 사정공(荊諱 수해壽海) 후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혹독한 시련도 세월에 묻혀버려 유배 한세대 30년이 지나 가면서 정종 오육품 이하 지방관직부터 벼슬길이 조금씩 열렸다.

그러나 정변이나 사화의 명부(名簿)를 가진 중앙정부가 시험을 주관하는 대과(大科)는 유배 당시에 정해진 햇수를 채워야 했다. 사정공의 현손인 귀봉(龜峯) 휘(諱) 덕린(德隣)이 대과급제(大科及第)를 오른 시기가 금고 98년째가 되는 해 1553년 명종(明宗) 8년이다.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으로 출사한 시기가 100년을 채운 해였다. 조선은 정변에 희생된 백성에게도 이처럼 엄격하고 잔인, 혹독했다. 권력은 눈부시지만 오래 머물지 않는 반면 생존은 길고도 길진 게 민중의 역사였다.

건강 칼럼 I 권영훈 한의사

전립선(前立腺) 기능과 정력精力

남성 호르몬은 사람을 남성적으로 만든다. 남성의 도전 정신과 적극적이며 펄펄 넘치는 활력은 바로 남성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남성 호르몬은 10세 이상부터 분비된다. 이때가 되면 소년들은 책이나 물건을 가슴에 안고 다소곳이 조용하게 다니지만, 소년들은 행동에 힘이 넘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외향적이고 활동적이 된다. 그야말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16~17세가 되면 남성 호르몬의 생성과 분비가 왕성하게 되어 최절정에 이르게 된다. 발남새는 진할수록 건강 상태가 좋다는 말은 정기(精氣)가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물론 이때는 근육과 뼈도 강하게 생성되는 시기다. 20대부터 30대 사이를 청년기라고 하는 것은 지구력이나 생성되는 정력이 가장 강한 때라는 뜻이기도 하다.

30대를 거쳐 40대를 지나면 장년기다. 활력이나 각종 성징(性徵)이 청년기에 비해 가파르게 차츰치는 않지만 그런 대로 현상태를 유지하는 시기다.

이때부터 남성은 전립선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경을 써야 한다. 즉 소변이 시원치 않거나 우유빛깔 같은 소변이 분비되는 경우도 있다. 또 지리하고 따끔거리는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여성에게는 없는 전립선은 남성 생식 기능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기관이다. 정액 성분의 40~50%를 차지하는 전립선액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정자가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여건, 즉 각종 영양소 등을 공급하는 기관이다. 전립선염이라 하면 흔히들 세균을 연

상하기 쉽지만 그런 경우는 5~10%도 되지 않으므로 그다지 염려할 것은 없다.

그러나 딱딱한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면 컴퓨터 등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한다. 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나 소변볼 때 힘이 약해지는 경우에는 그냥 방지하면 전립선 기능이 저하되어 만성으로 발전하게 된다.

한두 돌 된 남자 아이가 매일 아침마다 힘찬 고추, 즉 땀자게 오줌을 누면 그 아이는 매우 건강이 좋으며 정상인 경우다. 중년기 남성들도 아기 때처럼 매일같이 굳센 발기 현상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발기가 힘차면 전립선 기능은 별 이상이 없다고 봐도 좋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이상은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50대는 50%, 60대는 60%, 70대는 70% 정도가 전립선에 이상이 있다는 통계가 있다. 허튼 얘기가 아니라 얼추 맞는 말이다.

치료는 병변 자체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정력(精力)을 돕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력제 처방만으로는 치료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른바 오장 기능을 상승하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

첫째, 신수(腎), 간(肝), 심장(心臟), 위(胃), 폐(肺),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이라는 한방의 근본 치료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치료를 15~20회 정도 받으면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술 마신 이튿날 일어나기 힘든 것도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생기가 난다. 알콜 분해가 잘 되기 때문이다. 또 한 누적된 피로도 잘 풀리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다.

안동의 각 문중 종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점심을

권기수 안동권씨별장공파회장 겸 안동종친회원로원 수석부회장 일행이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안동의 각 문중 종손을 초청, 점심을 대접하였다.

일 년 중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하지(夏至) 6월 21일 낮 12시 안동시 안기천로 95에 위치하고 있는 ‘서부뒷고기 이베리코 식당’에서 시내 12개 문중 종손을 초청, 염소고기와 소고기 찜을 곁들여 점심을 먹었다.

작년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점심 행사를 갖는 권기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좌석이 다소 불편하여 죄송하고 바쁘신 되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경웅 전 제례부위원장도 “종손님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길 의성김씨 학봉 종손 겸 박약회 회장은 참석한 종손들을 앉은 자리 순서대

로 일일이 소개했다. 류건기 풍산류씨 한학자, 구성모 능성구씨 백담 종손, 변성열 원주변씨 간재 종택, 정성진 안동장씨 경당 종손, 하용락 진주하씨 단계 하위지 종손, 류상봉 풍산류씨 겸암 종손, 류창희 풍산류씨 서애 종손, 이방수 한산이씨 대산 종손, 권종만 안동권씨 병곡 종가, 이창근 진성이씨 노송정, 이세준 진성이씨 두류 종가, 이송영 영천이씨 간재 종택 등 모두 13명이며 권철환 안동종친회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초청은 했으나 바쁜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종손이 1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종손은 종가(宗家)의 대(代)를 이을 맡아들이나 맏손자로서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문중을 보살피고 있어서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종손들은 자신을 버리고 문중을 위해 불철주야 희생하고 있는 모습에 항상 본받을 점이라고 아울러 2세 교육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심장 질환 40~50대부터

심장 계통은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지나치게 변화가 나타나면 질환으로 발전된다. 또 심근 경색이나 협심증 등 심장 질환은 이른바 고량진미(膏粱珍味)에 탐닉하는 식생활이나 산성 식품과도 관련이 있다. 체폐에 자지 않아 수면이 부족하거나 잠기에 빠지는 등 무절제한 생활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말은 명언이다. 젊었을 때는 물론 40~50대 때는 세심한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 요즘 들어 사람들이 건강을 위하여 등산, 달리기, 헬스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산행을 나서는면 보통 해발 500~600m는 오르게 된다. 정상을 올랐을 때의 맥박은 1분에 130~140번 정도 뛰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은 가쁜해진다. 심장 기능이 강화되고 건강은 증진되어 최상의 상태가 된 것이다. 자동차로 말하자면 고속도로를 주행할 만큼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가 된 셈이다. 나아가서 술이나 음식은 더욱 맛있게 느껴진다. 그러나 술이 취하지 않는다고 마시다 보면 지나쳐서 취하기 마련이고 이때 맥박은 또 다시 100~120번 이상 뛰게 되어 심장에 무리가 된다. 또 피로를 풀고 술독도 푼다고 열탕에서 땀나는 목욕을 하게 되면 심장은 이중 삼중으로 혹사와 자극을 받게 된다. 사람이 80살을 산다고 할 때 심장은 대략 30억 번을 박동하게 된다. 빨리 뛰면 그만큼 심장 기능이 약화되고 수명까지 단축될 수 있는 것이다.

맥박은 느릴수록 좋지만 1분에 65~75 사이가 가장 좋다.



존경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손들을 초청,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었다.

주최 측은 이 자리 마련을 위해 염소 한 마리를 오랜 시간동안 푹 삶고 아울러 소고기 찜도 푹 찌서 먹기 좋게 음식을 만들어 종손들로부터 좋은 큰 호응을 얻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담을 나누면서 술과 음료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다.

주최 측은 내내에도 더 좋은 곳으로 초청,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건 보도부장

안동종친회 6·3 지방선거 출마자 피로연 열어

안동종친회(회장 권철환)가 주최하는 “6.3 지방선거 출마자 피로연”이 6월 22일 저녁 6시 안동권씨회관 2층 회의실에서 종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날 당선의 기쁨을 함께하고 아쉽게도 뜻을 이루지 못한 출마자들을 위로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당선자인 권기장 안동시장을 비롯하여 권백신 경북도의원, 권기억, 권기윤 안동시의원, 권해숙 안동시 비례대표의원(민주당), 경선에서 낙선한 권광택 안동시장 후보, 권기원, 권용덕 안동시 의원 후보 등이다.

이 자리에서 권재주 안동종친회 원로원 의장, 권계동, 권주연, 권기호 고문, 권오국 전 안동향교 전교, 권오중, 권중덕 선거대책위원, 권기욱 지회장협의회장, 권동현 총무협의회장, 손복영 부녀회장, 서점에 새천년부녀봉사대장 등이 참석하였다.

권철환 회장은 30대 젊은 나이로 사업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권오준씨(전 능곡의 회장) 딸을 소개하기도 했다.

권기원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피로연에 시조묘소 판매에 이어 권철환 회장의 인사말에서 첫 마디가 “죽다가 살아났다. 이빨도 두 개나 빠졌다. 여러분이 권문을 살려주어서 고맙다”고 말하자 우렁찬 박수가 쏟아졌다. 그는 “이번 선거에는 부녀회원들이 하나같이 도와주었고 나도 읍면동을 돌아다니며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고 회고했으며 “선거기간 중 안동권씨를 이간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기장 안동시장 부부는 단상위로 올라가 신발을 벗고 족친들을 향해 큰절을 올린 후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권 시장은 인사말에서 “선거에서 권문끼리 싸움은 저로서 끝나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마음고생이 많았음을 간접적으로 비추기도 했다. 그는 “안동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권문의 누(累)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사말이 끝나자 권 회장은 권기장 부부에게 꽃다발을 전하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권재주 의장은 축사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을 당선시키므로 안



동권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1,100여 년 동안 안동을 지켜온 안동권인데 대통령이 안동을 두 번이나 방문하였지만 어려운 난관을 지켜냈음을 자부했다. 권기수 수석부회장도 인사말에서 “이번 선거는 힘들었다. 본선보다 경선과정이 더 힘이 들었다. “앞으로는 권가까지 싸우지 말아야 하고 유권자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권해숙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권 의원은 안동권씨좌유공파 소속이며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철환 회장은 지난 5월 31일 안동종친회 원로원 회원을 위해 점심과 자리를 제공한 권아름 나눔과 치유 대표 겸 안동권씨 여성사무국장에게 감사장과 꽃다발을 수여했다.

권철환 회장은 아쉽게 떨어진 권기원 안동시 낙선자에게도 꽃다발을 전하고 위로 격려했다.

피로연 행사가 끝나자 2층 행사장 및 1층 사무실 등 두 군데에서 뷔페로 저녁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태사문학 제5집 <꽃모종> 출판기념회 개최

태사문학회(회장 권필원)가 6월 23일 11시 대종회 회의실에서 태사문학 제5집 <꽃모종>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권혁홍 회장을 비롯하여 권필원 회장, 권혁모 한국문인협회 이사, 권순자 편집국장, 권오운 시조시인, 권해조 편집위원, 권중숙 시인, 권남희 한국수필협회 이사장, 권영옥, 권태숙 수필가, 권중옥 전 한양대학교 교수, 권용태 전 역사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순자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권필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사람은 길 없는 길 걷는다. 전무후무한 문중문학을 제5집까지 출간했다. 그동안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문중 문사들의 성원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다. 권혁홍 회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며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권혁홍 회장은 고향은 여주이고 골판지 상자를 만드는 제지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60년 됐다. 전국에 15개 공장이 있다. 올해 85세인데 나이들어 좀 쉬나 했더니 어른들께서 대중회를 맡아 보라고 할 때마다 다른 분 찾아보세요 하고 사양하다 맡게 되었다. 대중회에 관심은 많았지만 참여는 없었다. 이와 취임했으니 대중회를 위해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하겠다. 취임 후 처음 행사로 문학에 뛰어난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다. 문학은 다들 좋아한다. 대중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권혁모 이사는 5집 발간까지 경과보고를 했다. 태사문학을 만들게 된 계기는 권태복 삼임위원께서 2022년 안동권씨 문중 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그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하게 되었다. 경주이씨 문학회가 유일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폐간되고 없다. 우리가 두 번째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유일하다. 그래서 양반이라고 하고 대단한 명



권혁홍 회장, 권필원 회장(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세번째)

문대가라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회원 각자 자기소개를 했다. 이어서 케익을 자르고 기념촬영을 했다.

대종회장과 의 간담회에서는 권필원 회장은 태사문학회가 안동권문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모임이다. 그러나 재정이 무척 어렵다.

재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오운 시조시인은 기로회와 태사문학회를 합쳐 대중회 내로 포용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혁홍 회장은 여러분들의 의견은 안동권문 70만 명 중의 1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치고 권혁홍 회장은 인근 식당에서 회원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회원들은 식사를 마치고 다시 대중회 회의실에 모여 총회를 진행했다.

권행완 편집국장